

## 장애인구역 암체주차, 부촌 일수록 심하다

일반주차장·공동주택 등에선 신고로 이어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해줘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처분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촌’으로 인식되는 서울 강남 지역 자치구에서 체납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차장뿐 아니라 매일 입주민들이 차를 대는 공동주택 등에선 장애인 주차구역을 놓고 신고로 이어지

는 등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 기도 한다.

차량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주인이 “장애인인 세상 사는 데 특권이니” “이웃끼리 그렇게 살지 말라” 등 비난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쉽게 확인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가 단속에 적발되고도 과태

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일도 늘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과태료가 체납된 누적 건수는 2만2959건이었고, 체납액은 31억8082만 원에 달했다.

2014년엔 1442건에 불과했지만 △ 2015년 2500건 △ 2016년 3425건 △ 2017년 5704건 △ 2018년 988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 2억5655만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 역시 지난 해 12억7134만 원으로 불어났다.

자치구별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는 서초구가 3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3억9561만 원이나

됐다. 강남구는 2717건에 3억509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는 체납 건수는 1010건이었지만, 체납액은 3억978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하지마비 장애인이나 수동 휠체어 탑승자 등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만큼, 평등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사)코코넛, 불우이웃 후원  
기금 마련 일일찻집 개최

사단법인 코코넛(이하 코코넛, 대표 박장용)은 지난 2일 남구 유안근린공원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코넛 회원들이 직접 전통 차 및 커피 등 음료와 후딱 떡볶이 등과 같은 먹거리를 판매했으며 코코넛에서 지원하는 맘스타(주부 커뮤니티) 자녀들의 통기타 연주와 라이브공연, 대학생 자원봉사자 플래시몹, 우드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찻집을 방문한 3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은 수의금이 좋은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며 격려했다. 이날 마련된 수의금 600만원은 광주시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사업, 불우청소년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장성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

장애인가족 12가정 18명 대상 해외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장애 아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만의 해외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 및 스트레스 해소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여행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해외 선진지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녀양육기술 및 자립지원에 대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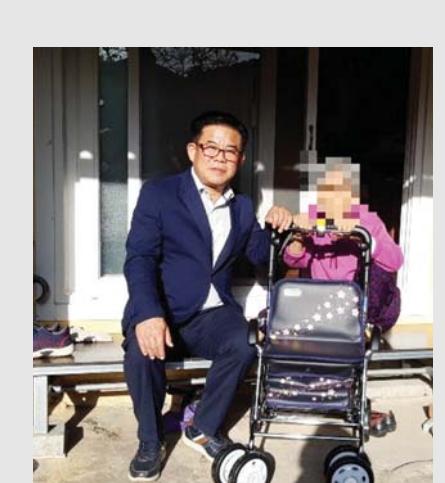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았네요. 이렇게 여행 온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로지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하였고, 사별 후 홀로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이주여성 B씨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17년 동안 처음으로 여행을 해본다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장성군 장애인부모회 회장 C씨는 “다른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런 기회가 없더라면 서로의 연락처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 및 여행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며 부모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족 12가정 1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행은 장애인 양육 및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예방을 목적으로 여가시간을 갖기 어려운 가족을 선별하여 진행되었다.

장성=박종영 기자



화순군 이양면, 거동불편

저소득층 성인용 보행기 전달

사례관리 대상자 20명 발굴

화순군 이양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2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보행기가 없거나 낡아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보행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양면 행정복지센터 및 출현형 복지팀과 각 마을 복지 이장·부녀회장이 함께 거동 불편 저소득층 26명을 1차로 발굴하고, 이양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에서 재산, 소득 현황과 보행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이번에 전달하게 됐다.

보행기를 지원받은 정 아무개 씨(73)는 “발 질환으로 통증이 심해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행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보행기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찬보 이양면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이번 보행기 지원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임로 340번길 5

Together Gwangsan